

국어 성조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성문*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의 성조체계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을 적용하여 성조체계의 변화를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하고자 한다.¹⁾ 국어는 고대국어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의 여러 방언에 이르기까지의 운소체계를 보면 성조언어의 상태에서 비성조언어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에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표준어(중부방언)의 장단 문제, 중세국어의 성조론, 경상방언의 성조론과 같이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중세국어와 현대 방언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시대적으로 보아도 종래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15세기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국어 성조체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

국어의 성조 변화를 논의하려면 15세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과 당시의 다른 지방의 방언이 같은 성조체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할 것이다. 즉 중부방언과 경상방언이 같은 성조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경상방언과 함경방언이 같은 체계였는지, 중부방언과 함경방언도 같은 체계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쉽게 제시하기가 어렵다. 다만,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즉, 중세국어 또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중부방언, 경상방언, 함경방언이 성조체계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본 연구에서 최적성이론에 관한 개관은 생략하도록 한다.

이 성립된다면 그 다음에 비성조언어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언별 성조체계의 변천에 대한 연구는 최적성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체계의 변이가 제약 등급의 변화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또한 시대별 변이도 역시 제약 등급의 변이에 의한 결과라는 점도 함께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방언론과 최적성이론의 두 연구 분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성조체계의 변천

2.1 성조의 유래

중세국어가 성조언어였다는 사실은 <훈민정음>, <훈민정음언해>, <훈몽자회> 등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국어보다 이른 시기에 국어가 성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국어가 원래부터 성조언어였다고 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은 어느 특별한 시기에 국어가 성조체계를 갖게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고대국어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국어 시기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경상도 지역에서 오늘날까지도 성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²⁾

이처럼 중세국어에서부터 보이는 성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다만, 중국어 기원설과 알타이어 기원설의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Lee 1978). 이 두 기원설도 실증적인 근거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2) 심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가설이 설부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역차를 분명히 확인하고 가설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대국어의 출발점을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성조가 같았다고 전제한 것이다. 이 문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정은 이웃의 성조언어인 중국어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오랫동안 한자를 문자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성조체계가 중국어와 비슷하지만, 그 성조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두 언어 사이의 성조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4성의 모습을 보이지만 중세국어는 실질적으로 3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휘의 차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성조체계 전반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는 한자의 수용 시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조체계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직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좀 더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국어의 성조가 알타이어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타이어는 성조언어였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Hattori(1949), Poppe(1965), Street(1974) 등이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알타이어의 성조체계는 훨씬 단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성조언어들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추정할 뿐이다. 이 문제도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2 중세국어의 성조

중세국어는 성조 언어였다. 이것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다. 성조는 방점으로 표기되었다. 평성은 무점, 거성은 1점, 상성은 2점을 찍도록 규정했다. 입성에 대해서 일정한 방점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국어의 성조체계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훈민정음 창제자는 중국의 사성 체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으면서도 국어의 성조체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에 알맞은 방점법을 마련했던 것이다.

국어의 성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거기에는 “左加一點則去聲 二點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이라 하였고, <훈민정음해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1) ㄱ. 平聲은 못갓가쁜 소리라
- ㄴ. 去聲은 못노폰 소리라
- ㄷ. 上聲은 처서미 늦잡고 乃終이 노폰 소리라
- ㄹ. 入聲은 썰리 굿들논 소리라

이와 같은 방점과 성조의 설명은 당시 중세국어에 고조, 저조로 나뉘는 이분의 높낮이와 음조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즉 거성은 글자 왼쪽에 점 하나를 찍는 고조이고, 평성은 방점이 없는 저조로 이 둘은 평판조이며, 상성은 방점 둘로 표시하여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저고의 복합조가 된다. 그리고 입성은 이러한 높낮이 음조의 구별과 상관없이 ‘ㄱ, ㄷ, ㄴ’ 등 폐쇄말음의 음절을 가리킨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성조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2) ㄱ. 평성(平聲): 安而和(春)
- ㄴ. 상성(上聲): 和而擧(夏)
- ㄷ. 거성(去聲): 擧而壯(秋)
- ㄹ. 입성(入聲): 促而塞(冬)

이 설명에 의하면 평성은 저조이고, 거성은 고조를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상성을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라고 한 것과 이의 표기를 2 점으로 한 사실은 이것이 저조와 고조의 복합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상성이 평성과 거성의 복합임은 15세기의 다음 자료에서 확인된다(이기문 1977).

- (3) 부터(佛) + · | = 부:테[L + H → LH]

‘부터’의 ‘터’는 평성이었는데 그 주격형 ‘부:테’는 상성인 것이다. 이 ‘테’의 상성은 ‘터’(평성)와 주격 조사 ‘· |’(거성)가 합치된 결과였다. 그 밖에 중세국어에 있어서 많은 단어가 오직 성조에 의해서 변별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4) ㄱ. 손(客), ·손(手)[L ~ H]

- ㄴ. ·솔(松), :솔(刷)[H ~ LH]
- ㄷ. ·발(足), :발(廉)[H ~ LH]
- ㄹ. 서·리(霜), ·서리(間)[L-H ~ H-L]
- ㅁ. 가지(茄), 가·지(種), ·가지(枝)[L-L ~ L-H ~ H-L]

일반적으로 명사의 성조는 고정적이었지만 동사의 그것은 고정적인 것보다 변동적인 것이 더 많았다. 가령 ‘쓰-’(書)는 언제나 고조였는데, ‘가-’(行), ‘오-’(來), ‘보-’(見) 등은 어미에 따라 저조와 고조로 변동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5) ㄱ. ·쓰·라, ·쓰·고[H-H : H-H]
- ㄴ. 가·라, ·가시·면[L-H : H-L-H]
- ㄷ. 오·라, ·오나·눌[L-H : H-L-H]
- ㄹ. 보·리·라, ·보·아[L-H-H : H-H]

한편 현대국어에서 고저는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 경상방언에서는 고저에 의하여 뜻이 분화되기 때문에, 이 방언의 고저는 변별적 자질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방언은 성조언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음의 장단은 국어에서 변별적 자질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말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언중의 의식에 분명히 파악되어서, 이 장단이 말의 뜻을 분화하는 구실을 한다. 특히 장음은 15세기 국어에서 주로 상성에 해당되는데, 모든 어휘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휘에 따라서는 장음도 변하여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장음은 비어두 음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특히 근대에 와서 일반화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장단의 구분도 거의 변별력이 없어지고 있다.

2.3 성조체계의 단계별 쇠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어의 성조는 고대국어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중세국어의 문헌에서 비로소 뚜렷하게 볼 수 있을 뿐이다. 15세기 문헌에서 엄격하게 지켜지던 방점 표기는 16세기에 들어 혼란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는 성조체계가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조의 변별력은 16세기 중엽으로 오면서 더욱 약화되고, 후반에 들어서서는 표기 체계가 극도로 문란해지면서 변별 기능을 잃게 되었다. 근대국어 이후에 방점 표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15세기에 비교적 엄격하였던 성조체계가 불과 1세기를 지나며 문란해진 까닭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이들이 갖는 초분절음소로서의 변별력이 잉여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조체계 안에서 각 성조들의 음운적 특성에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주격 어미에서 비롯된 격어미의 저조화(거성>평성) 현상이 용언의 활용어미에도 확대되었고, 주로 거성을 중심으로 같은 성조가 연속될 때에 성조가 바뀌거나 음운규칙 적용으로 생긴 이형태가 성조 실현을 달리하는 등, 한 형태소에 따른 고정된 성조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도 체계의 붕괴에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대국어의 경상방언에 나타나는 ‘음의 고저’와 중앙방언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음의 장단’ 구별은 중세국어에 뚜렷했던 성조체계가 변화, 소멸되면서 남긴 흔적이 확실하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음의 고저나 장단의 변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어가 초분절음소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³⁾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국어 성조체계의 변화가 ‘4성>3성>2성>Ø’의 단계를 거쳤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는 처음 성조가 도입될 고대국어 당시 4성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의 4성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입성은 성조의 역할과 상관없이 받침 ‘ㄱ, ㄷ, ㅂ’ 등 폐쇄음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해서, 중세국어에서는 ‘평성, 거성, 상성’의 3성만이 제 기능을 하였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성조의 기능이 잉여적으로 변하여 중부방언에서는 소멸하였으나, 경상방언과 함경방언에서는 상성은 사라지고, ‘저조, 고조’의 2성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남방

3) 본 연구에서도 아직 명확한 성조체계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에서 다룬 최적성이론의 제약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또한 성조에 관한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다른 음운현상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성조체계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원인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언에서는 ‘고조, 중조, 저조’의 3단계를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이것은 아마도 중앙방언에서 제일 떨어져 있고, 모음도 가장 적은 6모음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상방언과 함경방언 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성조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어에서 성조 체계는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모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6) 성조의 소멸 단계

4성	3성	3성	2성	∅
고대국어	중세국어	경남방언	경북방언 함경방언	중부방언
평성(L)	평성(L)	M	L	없음
거성(H)	거성(H)	H	H	
상성(LH)	상성(LH)	L		
입성(L, H, LH)				

여기에서 입성은 중세국어에서 발견되는 음운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세국어 당시에는 성조의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고대국어 단계에서만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음절이 받침 ‘ㄱ, ㄷ, ㅂ’ 등의 무성음으로 끝나면 입성을 지니게 되며, 그밖의 경우에는 입성을 띠지 않는다. 입성의 성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한 음절의 성조에 따라 ‘입성적 평성, 입성적 거성, 입성적 상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의 기본(default) 성조는 ‘L(고대)→L(중세)→M(경남)→L(경북, 함경)’라고 하겠다. 즉, 평성이 계속 기본 성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논의로는 Lee(1978), Ramsey(1975) 등이 있다. 이 논의들에서는 성조체계에서 중세국어와 함경방언, 전라방언, 경상방언, 중부방언 등이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⁴⁾

4) 김영만(1986)에서는 경상 방언의 경우 중세국어의 경우와 성조가 반대로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세국어의 고조, 저조가 경상 방언에서는 거꾸로 저조, 고조로 바뀌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영만(1986)의 연구가 성조체계의 일반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2.4 방언별 운소 체계

성조체계의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관찰이 가능한 현대국어의 초분절음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현대국어의 각 방언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변별적인 초분절음소가 있으며 이것은 일찍부터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언중들에게도 인식되었다. 그 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음장이었다. 음의 장단에 대한 식별은 지식영(1906), 주시경(1908) 등 개화기의 문헌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한편 경상방언에는 고저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허웅 1955, 김차균 1999 등). 함경방언은 경상방언과는 다른 성조를 가졌다는 것도 잘 알려졌다(김영만 1974). 뿐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에서는 강세도 일정한 기능을 하고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현복 1973).

현대국어의 초분절음소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 있게 기술하여 중세국어와의 연관을 맺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현대국어의 성조체계를 크게 네 가지의 방언권으로 나누어 기술하려 한다. 그 이유는 각 방언들이 고저와 장단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김영만 198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ㄱ. 중부 방언(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평안, 황해)

- ㄴ. 경북 방언
- ㄷ. 경남 방언
- ㄹ. 함경 방언

(8) 운소 체계의 변화

중세국어	경남방언	경북방언	함경방언	중부방언 (이전)	중부방언 (최근)
평성(L/단)	M	L(단)	L	단	∅
거성(H/단)	H	H(단)	H		
상성(LH/장)	L	L(장)	L	장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사실은 우리말의 모든 어휘가 초분절 음소에서는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는 것이다. 중부방언에서는 장음과 단음, 함경방언에서는 저조와 고조가 있지만, 종합하면 세 가지 유형을 얻을 수 있으며 더구나 경남, 경북은 세 유형을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세문헌의 세 가지 성조인 평성, 거성, 상성과 정확한 대응을 이루고 있다. 중부방언에서는 장단이 변별적인데 비해 경남방언과 함경방언은 고저가 변별적이다. 이에 비해 경북방언은 장단과 고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하겠다.

앞의 비교에서 우리는 중부방언도 과거 어느 시기에는 고조와 저조의 구분이 있었으며, 함경방언에서도 고조에 하위 구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 15-16세기 문헌의 방점이다(김차균 1999, 김영만 1974).

각 운소와 자질에 있어서도 방언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뚜렷한 것은 고조와 저조가 경남과 경북에 있어서 완전 일치한다는 것이다. 중세에 있던 세 운소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양 방언에 있어서 두 운소의 자질이 완전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장음이다. 장음은 우리나라의 중부방언은 물론이고, 경북방언까지 해당한다. 이 광범한 지역에 걸친 장음은 선저후고라든가 선고후저가 아닌 완전한 평탄형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기록을 믿고 중세국어의 2점이 선저후고라고 믿고 오늘 이것이 평탄해진 것은 서울말 등에서 고저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허웅 1955). 그러나 서울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저가 엄연히 존재하는 경상방언에서조차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음은 저와 고의 복합어가 아니고, 단일한 하나의 운소 즉 장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최근 들어 이 장단의 구분도 사라져 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어에서는 운소에 해당하는 고저와 장단은 소멸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최적성이론의 적용

3.1 제약의 설정

여기에서는 성조와 장단의 연결을 최적성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성조와 장단에 관한 제약과 그 등급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하게 될 성조 관련 제약들은 대부분 Pulleyblank(1997)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성조는 모음에 연결되어 발음된다. 그래서 Goldsmith(1976)에서 제시한 ‘적형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모음은 성조와 연결되어야 하고, 성조는 모음과 연결되어야 하는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조와 장단의 실현을 위한 충실성 제약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 Link[V→T]: 동일 음절 내에서 하나의 모음은 하나의 성조와 연결되어야 한다.
- (10) Link[T→V]: 동일 음절 내에서 하나의 성조는 하나의 모음과 연결되어야 한다.
- (11) Max-T: 입력형의 성조는 출력형에 실현되어야 한다.
- (12) Max-Length: 입력형의 장단은 출력형에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세국어 이후에는 상성과 같은 복합성조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복합성조를 금지하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필요하다.

- (13) *Contour: 복합 성조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현대국어의 중부방언과 같이 성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성조를 금지하는 유표성 제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경남방언과 함경방언에서는 장단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장단을 금지하는 유표성 제약도 필요하다.

- (14) *Tone: 성조의 실현을 억제한다.

(15) *V(Long): 장모음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약들이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변천하면서 방언에 따라 그 등급이 다양하게 변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제약 등급의 변화

여기에서는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의 각 방언들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설정한 제약들이 어떤 등급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를 논의할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거성과 상성의 모습을 보이고 현대국어의 중부방언에서 단음과 장음으로 실현되는 ‘· 발(足)(H), :발(簾)(LH)’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단, 성조의 표기는 유표적 성조만을 표시한다.

1) 중세국어

우선 중세국어의 제약 등급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성조와 장단의 실현이 가능하고 복합성조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제약 등급으로 실제의 예를 설명하면 다음의 (17), (18)과 같다.

(16) Link[V→T], Link[T→V] ≫ Max-T, Max-Length ≫ *Contour, *Tone, *V(Long)

(17) /· 발(足)/(H) → [발](H)

H /pal/	L[V→T]	L[T→V]	Max-T	Max-L	*Cont	*Tone	*V(L)
H a. pal						*	
H ^ b. paal		*!		*		*	*
c. pal			*!				
d. paa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nk[T→V], Max-T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17a)가 최적형이 되었다. (17b)는 Link[T→V]를, (17c, d)는 Max-T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18) /:발(簾)/(LH) → [발:]LH

H /pa:l/	L[V→T]	L[T→V]	Max-T	Max-L	*Cont	*Tone	*V(L)
LH a. paal					*	*	*
L H ∨ b. pal	*!			*	*	*	
H ^ c. paal		*!				*	*
H d. pal				*!		*	
e. paal			*!			*	
f. pal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nk[V→T], Link[T→V], Max-T, Max-Length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18a)가 최적형이 되었다. (18b)는 Link[V→T]를, (18c)는 Link[T→V]를, (18e, f)는 Max-T를, (18d)는 Max[Length]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2) 경복방언

이번에는 현대국어의 경복방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경복방언은 중세국어처럼 복잡성조를 보이지는 않지만 성조와 장단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정렬 제약을 필요로 한다. 이 제약에 의하면 저조가 최적형으로 실현되게 된다.

(19) Align-Left[Tone]: 성조는 해당 영역 왼쪽 가장자리와 정렬되어 실현된다.

이 제약을 포함한 등급과 그 실현형은 다음과 같다.

(20) *Contour, Align-Left[Tone] ≫ Link[V→T], Link[T→V] ≫ Max-T, Max-Length ≫ *Tone, *V(long)

(21) /· 발(足)/(H) → [발](H)

H /pa:l/	*Con	A-L[T]	L[V→T]	L[T→V]	Max-T	Max-L	*T	*V(L)
H a. paal							*	
H ^ b. paal				*!		*	*	*
c. paal					*!			
d. paa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nk[T→V], Max-T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21a)가 최적형이 되었다. (21b)는 Link[T→V]를, (21c, d)는 Max-T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22) /:발(簾)/(LH) → [발:](L)

H /pa:l/	*Con	A-L[T]	L[V→T]	L[T→V]	Max-T	Max-L	*T	*V(L)
LH a. paal	*!						*	*
L H ∨ b. paal	*!		*			*	*	
H ^ c. paal		*!		*			*	*
H d. paal		*!				*	*	
e. paal					*			*
f. paal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tour, Align-Left[Tone], Max-Length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22e)가 최적형이 되었다. (22a, b)는 *Contour를, (22c, d)는 Align-Left[Tone]을, (22f)는 Max-Length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3) 함경방언

현대국어의 함경방언의 경우는 경북방언과 조금 다르다. 복합성조가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단의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23)과 같은 제약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실현형도 함께 살펴보면 (24), (25)와 같다.

- (23) *Contour, Align-Left[Tone], *V(Long) ≫ Link[V→T], Link[T→V] ≫ Max-T ≫ Align-Left[Tone] ≫ *Tone, Max-Length

- (24) /· 발(足)/(H) → [발](H)

H /pal/	*Con	A-L[T]	*V(L)	L[V→T]	L[T→V]	Max-T	*T	Max-L
H a. pal							*	
H ^ b. paal			*!		*		*	*
c. pal						*!		
d. paa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V(Long), Max-T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24a)가 최적형이 되었다. (24b, d)는 *V(Long)을, (24c)는 Max-T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 (25) /:발(簾)/(LH) → [발](L)

H /pa:l/	*Con	A-L[T]	*V(L)	L[V→T]	L[T→V]	Max-T	*T	Max-L
LH a. paal	*!		*				*	
L H ∨ b. pal	*!			*			*	*
H ^ c. paal		*!	*		*		*	
H d. pal		*!					*	*
e. paal			*!			*		
f. pal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tour, Align-Left[Tone], *V(Long)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25f)가 최적형이 되었다. (25a, b)는 *Contour를, (25c, d)는 Align-Left[Tone]을, (25f)는 *V(Long)을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4) 중부방언

현대국어의 중부방언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방언들과 다르다. 즉, 성조는 나타나지 않고 장단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26)과 같은 제약 등급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실현형도 함께 살펴보면 (27), (28)과 같다.

(26) *Contour, *Tone ≫ Max-Length ≫ Align-Left[Tone] ≫ *V(Long),
Link[V→T], Link[T→V], Max-T

(27) /· 발(足)/(H) → [발]

H /pa:l/	*Con	*T	Max-L	A-L[T]	*V(L)	L[V→T]	L[T→V]	Max-T
H a. pal		*!						
H ^ b. paal		*!			*			
□c. pal								*
d. paa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ne, Max-Length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27c)가 최적형이 되었다. (27a, b)는 *Contour를, (27d)는 Max-Length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28) /:발(簾)/(LH) → [발:]

H /pa:l/	*Con	*T	Max-L	A-L[T]	*V(L)	L[V→T]	L[T→V]	Max-T
LH a. paal	*!	*			*			
L H ∨ b. pal	*!	*	*			*		
H ^ c. paal		*!		*	*		*	
H d. pal		*!	*	*				
□e. paal					*			*
f. pal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tour, *Tone, Max-Length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28e)가 최적형이 되었다. (28a, b)는 *Contour를, (28c, d)는 *Tone을, (28f)는 Max-Length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중부방언을 비롯한 모든 방언권에서 고저와 장단이 모

두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제약 등급과 실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29) *Contour, *Tone, *V(Long) ≫ Align-Left[Tone] ≫ Link[V→T],
Link[T→V], Max-T, Max-Length

(30) /· 발(足)/(H) → [발]

H /pa:l/	*Con	*T	*V(L)	A-L[T]	L[V→T]	L[T→V]	Max-T	Max-L
H a. pal		*!						
H ^ b. paal		*!	*			*		*
☐c. pal							*	
d. paa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ne, *V(Long)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30c)가 최적형이 되었다. (30a, b)는 *Tone을, (30d)는 *V(Long)을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31) /:발(簾)/(LH) → [발]

H /pa:l/	*Con	*T	*V(L)	A-L[T]	L[V→T]	L[T→V]	Max-T	Max-L
LH a. paal	*!	*	*					
L H ∨ b. pal	*!	*						*
H ^ c. paal		*!	*	*	*			
H d. pal		*!		*	*			*
e. paal			*!				*	
☐f. pal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tour, *Tone, *V(Long)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31f)가 최적형이 되었다. (31a, b)는 *Contour를, (31c, d)는 *Tone을, (31e)는 *V(Long)을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5) 경남방언

현대국어의 경남방언은 지금까지 다루어온 경우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조가 실현되기는 하는데 고저의 두 단계가 아니라 ‘고, 중, 저’라는 세 등급을 보이고 있고, 장단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기본 성조는 중조(M)가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충실성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32) Dep-T: 입력형에 없는 성조를 실현시켜서는 안 된다.

이 제약은 경남방언의 기본 성조가 중조(M)이므로, 저조(L)가 출현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되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포함한 새로운 제약 등급은 다음과 같다.

(33) *Contour, *V(Long) ≫ Align-Left[Tone] ≫ Link[V→T], Link[T→V] ≫ Dep-T ≫ Max-T ≫ *Tone, Max-Length

실제 예는 중세국어에서 평성으로 실현되는 예인 ‘손(客)(L)’을 포함하여 ‘· 발(足)(H), :발(簾)(LH)’ 모두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34) /손(客)(L) → [손](M)

/son/	*Con	*V(L)	A-L[T]	L[V→T]	L[T→V]	D-T	M-T	*T	M-L
L a. son						*!		*	
L ^ b. soon		*!			*	*		*	*
☐c. son									
d. soon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V(Long), Dep-T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34c)가 최적형이 되었다. (34b, d)는 *V(Long)을, (34a)는 Dep-T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35) /· 발(足)/(H) → [발](H)

H /pa/	*Con	*V(L)	A-L[T]	L[V→T]	L[T→V]	D-T	M-T	*T	M-L
H a. pal								*	
H ^ b. paal		*!			*			*	*
c. pal							*!		
d. paal		*!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V(Long), Max-T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35a)가 최적형이 되었다. (35b, d)는 *V(Long)을, (35c)는 Max-T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36) /:발(簾)/(LH) → [발](L)

H /pa:l/	*Con	*V(L)	A-L[T]	L[V→T]	L[T→V]	D-T	M-T	*T	M-L
LH a. paal	*!	*				*		*	
L H ∨ b. pal	*!			*		*		*	*
H ^ c. paal		*!	*		*			*	
H d. pal			*!					*	*
L ^ e. paal		*!			*	*		*	
L f. pal						*!		*	*
g. paal		*!					*		
h. pal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tour, *V(Long), Align-Left[Tone], Dep-T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36h)가 최적형이 되었다. (36a, b)는 *Contour를, (36c, e, g)는 *V(Long)을, (36d)는 Align-Left[Tone]을, (36f)는 Dep-T를 결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최적성이론의 제약 등급의 변화로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 여러 방언의 성조 변화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5.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뚜렷해진 사실은 국어에는 오래 전부터 성조가 있었으며, 그것이 오늘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성조는 국어 초분절음소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특히 단음절어에서 뚜렷이 구분되고 있

다. 그러나 기원적인 성조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 다양한 변이형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대국어에서는 성조체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변별적 자질은 고저와 장단이라 생각한다.

통시적 연구인만큼, 성조체계의 기원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는 현 상태에서 뚜렷한 견해를 밝힐 수가 없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어와 알타이어와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제시했을 뿐이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성조의 기원과 관련한 사실들을 탐구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생각이다. 또한 다양한 성조 실현 양상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만(1974) 방점 표기의 원칙과 성조 변화,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김차균(1969) 전남 방언의 성조, 한글 144, 한글학회.
 _____(1999) 우리말 방언의 성조 비교, 역락.
 이기문(197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이현복(1973) 현대한국어의 accent, 서울대 문리대학보 19, 서울대.
 주시경(1908) 조선어문전음학.
 지석영(1906) 언문, 광학서보.
 허웅(1955) 방점 연구, 동방학지 2, 연세대 국학연구원.
 Goldsmith, John(1976) Autosegmental phonology, MIT Ph. D. dissertation, Garland Press.
 Hammond, M(1997) Optimality theory and Prosody, in Achangeli & Langendoen, eds., *Optimality Theory: An Overview*, Cambridge: Blackwell.
 Hattori, Shiro(1949) The relationship of Japanese to the Ryukyu, Korean, and Altaic language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1*, 101-133.
 McCarthy & Prince(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Dept. of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McCarthy & Prince(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Poppe, Nikolaus(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Prince & Smolensky(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114 동북아 문화연구 제12집 (2007)

-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 Pulleyblank, Douglas(1997) Optimality Theory and Features, in Achangeli & Langendoen, eds., *Optimality Theory: An Overview*, Cambridge: Blackwell.
- Ramsey, S. R(1973) 함경, 경상 양방언의 액센트 연구, 국어학 2. 국어학회.
- Lee, Sang-oak(1978) Middle Korean Tonolog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Street, John(1974) On the lexicon of Proto-Altai: A partial index to reconstructions, Ms. Madison, Wisconsin.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tone system

Cho, Sung 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diachronic change of Korean tone system. And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change of a tone system by Optimality Theory. Korean have changed because it reached from the ancient Korean to many dialect of the contemporary Korean. A prosodic system have changed from the situation of a tone language in a non-tone language. But previous studies treated a tone system so that it was so simple, and compared many dialect of the contemporary Korean simply just with the middle Korean. Consequently in this study we try to argue specifically the change course of Korean tone system by Optimality Theory.

주제어 : 통시적 변화, 성조체계, 최적성이론, 운소 체계, 방언

Key word : diachronic change, tone system, Optimality Theory, prosodic system, dialect

투고일 : 2007년 2월 13일

심사일 : 2007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 2007년 3월 22일